국토교통부

보고서번호: ARAIB/UAR1701

초경량비행장치사고 중간보고서

이륙 중 추락
회사(두산레저파크)
초경량비행장치(탠덤패러글라이더)
충남 단양군 가곡면 사평2리 200-5번지
2017. 4. 28.

2018. 9.

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
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
국토교통부

초경량비행장치사고 중간보고서

가. 사고

- 운영자: 두산레저파크
- 발생지점: 충남 단양군 가곡면 사평2리 200-5번지
- 발생일시: 2017년 4월 28일 11:24경(한국표준시각)
- 초경량비행장치 형식 및 신고번호: 탠덤패러글라이더, S9669
- 비행 유형: 단양 두산활공장 이륙 후 2분 후 추락
- 탑승자 수: 2명(조종자, 체험자)
- 인명 피해: 조종자 및 체험자 중상
- 초경량비행장치 손상: 없음
- 조종자 자격증 보유/비행경력: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 (자격번호 91-002583)/4년

나. 개요

2017년 4월 28일 11:24경 충북 단양 두산활공장에서 두산레저파크 소속 초경량비행장치(탠덤패러글라이더)가 조종자(남, 50세)와 체험자(여, 28)가 탑승하여 이륙하였으며, 이륙 후 약 1~2분 후에 고도 약 20~30m에서 추락하였다. 이 사고로 조종자와 체험자가 중상을 입었다.

다. 조사 진행현황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ARAIB)는 사고발생 즉시 통보를 받았으며, 대한민국 '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작하였다.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하였으며, 조종자 및 체험자를 만나 사고 당시 비행경위를 확인하였고, 두산레저파크(주)를 방문하여 회사의 영업상황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내용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.

라. 비행경위

2017년 4월 28일 11:24경 초경량비행장치가 조종자와 체험자가 체험자의 체험비행을 위해 후방이륙방법으로 1차 이륙을 시도하였으나 체험자가 주저앉게 됨으로 실패하였고, 2차 이륙을 시도하여 정상적으로 비행을 시작하였다.

조종자의 진술에 따르면, 초경량비행장치가 이륙 후 상승 중 고도 약20~30m에서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불어 캐노피가 출렁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하였고, 조종자는 추락 중에 좌측으로 측면 비상착륙을 시도하였으며, 비상낙하산을 전개하려고 하였으나 고도가 낮아서 비상

낙하산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.

초경량비행장치가 추락한 후 조종자 및 체험자는 허리에 중상을 입었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구조되어 원주기독병원 및 대전 유성선병원으로 각각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.

사고 당시 두산활공장 인근에 위치한 단양기상청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하늘상태는 맑았으며, 바람은 이륙 시 북풍이나 북서풍이 초속 2m 정도 불었으나 이륙 후에는 바람방향이 남서풍으로 초속 2.5~3m 정도로 불었다.

마. 추가정보

없음

바. 안전권고

이 사고 조사와 관련한 안전권고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.